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보고서

2015. 2.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목 차

I.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3
II. '15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5
III.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전략	6
【별첨】 말레이시아 경제동향 및 무역관 주요사업	14

□ 말레이시아 시장 특성

○ 대외 개방적 경제구조로 진출 용이

- 인구 3,000만에 비해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비즈니스 환경이 양호해 각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여 경쟁 중
- '8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추진으로 약 5,000개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여 전기전자 등 제조업 주도
- 여타 ASEAN 국가와 마찬가지로 ASEAN 역내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며, 전체 교역액 중 ASEAN 역내 교역 비중이 약 73%임.

○ 화교의 영향력이 큰 내수시장

- 전체 인구의 25%인 화교로 지칭되는 중국계가 전체 상권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화교와의 유대관계 형성은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마케팅 활동에 핵심 요소

○ 직수입 보다 중간수입업체를 통한 납품이 일반화

- 말레이시아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들은 자국기업에 가능한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수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일반 민간 대기업들도 효율적으로 공급선 관리를 하기 위해 복잡한 공급선 관리 및 수입관련 행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현지 수입유통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을 받는 것을 선호

○ 정부공사 및 공공기관 납품 시 말레이계 기업 우대

- 말레이시아에서는 프로젝트 수주나 공공공사 수주 관련해서 말레이계 기업 우대 관행을 엄두에 두어야 함. 말레이시아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에 비해 경제적 위상이 약했던 말레이계 말레이시아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부미푸트라 정책)
- 지금은 부미푸트라 정책이 거의 없어졌다고는 하나 국영기업이 발주하는 프로젝트, 공공공사 수주 시에는 여전히 유효

□ 말레이시아 시장의 전략적 가치

○ 동남아 중산층 시장의 ‘ 테스트베드’ 역할

- 말레이시아는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선 중소득국가로 아세안 역내에서 중산층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며, 싱가포르와 더불어 글로벌트렌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지역임.

○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의 활발한 성장

- 수도권 경전철(LRT, MRT)프로젝트와 말-싱 고속철도, 보르네오 고속도로, 전력 플랜트 등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음.

※ 보르네오횡단고속도로(Pan-Borneo Highway) : 90억 달러
경전철(LRT, MRT) 프로젝트(2차 및 3차) : 100억 달러

○ 동남아 석유/가스 및 해양플랜트 산업의 중심

- 하루 65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말레이시아는 단순 원유생산에서 벗어나 시추, 탐사, 채굴, 운송 등 해양플랜트 분야와 정유, 석유화학 등 석유화학플랜트까지로 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음.

※ 조호르 지역 ‘ Pengerang종합석유화학단지(RAPID)’ : 220억 달러

○ 할랄인증과 할랄 식품/서비스 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 할랄허브’ 지향

- 말레이시아 할랄시장은 2011년 150억 링깃(50억 달러) 규모에서 꾸준히 성장해 2020년에는 전체 GDP의 5.8%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을 글로벌 '할랄인증'으로 육성하고, 2020년까지 '글로벌 할랄 허브'로 성장 지향

○ 국제 이슬람금융시장의 ‘ 아시아 허브’ 로 부상

-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재 16개의 이슬람 은행과 11개 이슬람 보험사가 영업 중이며, 정부가 이슬람금융시장을 정책적으로 육성해 아시아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올라있음.
- 이슬람금융권의 자산규모도 2012년 1,250억 달러에서 2018년 3,9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4월 1일부로 ' 재화용역세(GST)' 본격 도입

- 말레이시아는 2015년 4월 1일부로 GST(재화용역세) 전면도입을 확정된 상태
- 기존 일부 분야에 복수의 세율로 적용되던 영업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를 대체해, 전 산업 분야에 6% 단일세로 적용되는 GST 도입
- 수입품에도 일괄적용 예정이므로 수입제품 가격상승 효과가 발생하지만, 대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 진다는 면은 긍정적임.

□ 저유가로 인한 경기위축 우려 속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성장정책 지속

- 말레이시아 재정의 30%를 차지하는 석유가격 인하로 정부의 긴축재정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임.
- 55억 링깃 예산절감 속에도 ' 경제성장 지속' 과 ' 재정적자 감축' 예산 기조를 유지하면서 RAPID, MRT, LRT 등 대형 교통 프로젝트 중심의 개발프로젝트 계속 추진

□ TPP 참여와 타결을 위한 노력 진행 중

- 말레이시아 정부는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TPP) 타결을 위해 참가국(12개국)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며 TPP 타결시 말레이시아는 베트남과 더불어 가장 큰 통상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링깃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속에 완만한 회복세 전환

- 국제유가 인하와 말레이시아의 메가프로젝트 진행 등으로 인해 달러대비 링깃화 가치가 금년 1월초까지 지난해 9월초 대비 3개월 사이에 12% 급락.

□ 2015년 ASEAN 의장국으로서 AEC(ASEAN 경제공동체) 출범 준비

- ASEAN 회원국들은 2015년 말까지 역내 물품 및 서비스 시장을 통합하는 AEC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통합 노력을 진두지휘하고 있음.

III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전략

□ 중장기 진출전략

목표

2020년 말레이시아 수출 500억 달러 달성

방향

내수 소비시장 선점 + 타겟 산업 공략 통한 아세안시장진출 교두보 구축

타겟 분야	2015-2016 시장 진입	2017-2018 시장 확대	2019-2020 시장 정착
내수 소비재시장	경제한류 활용한 소비재 브랜드마케팅 활동 강화 홈쇼핑/온-오프라인 유통 네트워크와 협력기회 모색	한류 소비재브랜드 정착을 위한 한국계 홈쇼핑/ 온라인/ 모바일 유통채널 활용 마케팅 정례화(심화)	한국계 유통채널을 활용한 현지 내수 소비재시장 점유율 확대
공공 인프라 시장	정부 발주 발전/ 수처리/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활로 개척. 프로젝트 조사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현지 공공인프라 발주처 네트워크 구축 활용. 인프라 선도기업을 활용한 대중소 상생협력 사업 고도화	공공인프라 분야 진출 활성화로 한국 진출기업간 수직계열화 추구
조선해양 플랜트	시장현황/진출전략 조사 현지 주요 EPC기업들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해양플랜트 분야 한국 기업 투자진출 지원 및 기술협력/M&A 확대로 양국간 산업협력 강화	글로벌 해양 플랜트 시장 진출을 위한 양국간 Win-Win 협력기반 구축
할랄 상품/서비스	할랄인증 협력 강화. 할랄 상품시장 테스트베드로 활용.	한국 할랄인증 국제화. 글로벌 할랄마켓 공동 진출 기회 모색.	체계적 할랄인증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동남아/중동시장 진출 교두보 구축
석유화학 플랜트	플랜트 건설에 한국 중소기업 참여 지원. 현지 파트너기업 발굴	석유화학플랜트 분야의 기술전수 및 관리기자재 및 서비스 수출 확대	플랜트 건설 외에 유지보수 시장까지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기반 구축

□ 세부 추진전략

1) 상품교역 분야 유망품목

- 말레이시아는 한국으로부터 핵심 가전부품이나 정유 및 석유화학제품, 승용차, 철강 등 주로 대기업 품목을 수입하고 있음.

* 10대 수입품목의 對한국 수입비중: 49.01%(2013년), 47.96%(2014년)

[말레이시아 10대 대한민국 수입품목]

(단위 : 천달러)

순번	품목명	2013년	2014년
		수출금액	수출금액
	총계	8,587,757	7,582,611
1	집적회로반도체	546,094	683,048
2	평판디스플레이	390,075	589,961
3	휘발유	230,604	532,435
4	기타정밀화학원료	228,395	323,405
5	경유	1,672,631	313,846
6	합성수지	294,300	292,788
7	합성고무	275,873	285,202
8	승용차	316,530	239,371
9	동과및스크랩	80,569	222,105
10	냉연강판	173,782	154,107

자료원 : KITA

- 이 밖에도 말레이시아는 자국 자동차브랜드(Proton, Perdua)를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 부품** 수요도 있고, 최근 들어 한국산 자동차가 인기를 끌면서 **자동차용 악세서리** 시장도 유망한 편임.
- 1980년대부터 정부차원에서 육성해 온 전기/전자 산업을 기반으로 반도체 및 소형 가전 산업이 발전해 **전자부품** 및 **반도체 제조설비 및 장비** 시장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음.
- 최근에는 한류열풍을 타고 식품이나 **화장품, 생활용품, 건강용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화장품의 경우, 2014년에는 4천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2010년 대비 4배나 성장하였고, 특히 대기업 브랜드보다 OEM이나 ODM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들의 성장이 더 빨랐던 것으로 분석되었음.

- 식품의 경우에도 라면과 김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라면의 경우 할랄 인증을 받은 라면들이 등장하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임.

[對말레이시아 김치/라면 수출 통계]

(단위 : 천달러)

품목군	HS Code	한국 → 말레이시아		
		2011년	2012년	2013년
김치 등 절임류	200599	6	16	160
라면 등 면류	190230	1,379	2,014	2,159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생활용품이나 가정용품의 경우, 한류드라마의 영향으로 현지 유통점에서 자주 개최되는 한류상품전(Korea Fair)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또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각종 플랜트 프로젝트들을 한국 대기업들이 수주하고, 한국 벤더들이 동반진출하면서 한국산 축전기, 밸브, 펌프 등 기계장치나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

[중소/중견기업형 對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천달러)

수출 순위	품목명	2013년 수출금액	2014년 수출금액
	총계	8,587,757	7,582,611
11	동조가공품	126,996	130,471
12	인쇄회로	113,098	123,826
14	기타석유화학제품	101,874	87,612
16	기타플라스틱제품	76,740	79,709
17	자동차부품	86,574	77,080
18	축전기	18,404	74,969
19	축전지	140,148	74,568
21	건설중장비	79,075	72,763
23	석유화학합성원료	65,118	70,861
24	계측기	38,833	70,716
27	필름류	49,083	62,693
31	컴퓨터부품	79,918	60,248
35	기타금형	27,083	44,775
36	화장품	38,204	43,100
37	골판지원지	39,283	42,183
38	공기조절기	13,111	41,899
45	펌프	54,037	38,138
46	밸브	54,126	38,076
56	원동기	28,295	27,593

자료원 : KITA

2) 상품교역 분야 진출 전략

- 대기업 제품에 편중된 현재 수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수출상품의 다변화가 필요한 바,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의 제품이 현지 시장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장접근 채널을 개척**해 갈 예정임.
- 특히 중소기업 제품 중에 현지에서 한류를 활용한 브랜드마케팅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식품이나 화장품, 생활용품, 건강용품 등을 집중적으로 프로모션 할 수 있는 마케팅 기회와 채널을 개발해 갈 것임.
- 이를 위해 최근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한 **한국계 홈쇼핑(GS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11번가, QOO10)**을 새로운 마케팅 채널로 적극 활용해 한국기업들의 현지시장 진출창구로 적극 활용할 예정임.

※ 2015년 3월 26~27일 'GS 홈쇼핑 시장개척단' 말레이시아 파견 예정

- 한류를 활용한 소비재 브랜드마케팅을 위해 현지 유력 유통체인점과 공동으로 'KOREA FAIR'를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 브랜드의 현지 시장에서의 인지도 확대를 지원할 예정임.

3) 투자진출/투자유치

- 말레이시아는 최근 3년간 1000MW급 발전소들을 4개 이상 발주하였고, 대부분의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의 대기업들이 수주한 상황이며, 추가 발전소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들이 수주 경쟁에 나서고 있음.

[2012년 이후 말레이시아 발전소 수주 현황]

프로젝트	발전규모	수주기업	한국기업 참여 현황
Track 1	1,071MW	Tenaga Nasional Bhd	TNB로부터 삼성물산이 EPC 공사 수주
Project 3A	1,000MW	Tenaga Nasional Bhd	TNB로부터 대림이 EPC 공사 수주
Project 3B	2,000MW	1Malaysia Development Bhd, Mitsui & Co. Ltd. 컨소시엄	포스코가 현지기업과 컨소시엄을 수주하여 입찰에 참여

*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종합

-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석유가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연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유전개발분야와 종합석유화학 단지(RAPID) 조성에 투자가 집중될 예정임.
- 따라서 해양플랜트 분야와 석유화학 플랜트 분야의 기자재 기업이나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가진 한국기업들에게 시장진출 기회가 창출되고 있는 상황임.
- 이 밖에도 MRT 1, 2호선이나 LRT 등 도심 내 경전철 프로젝트들과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간 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어 ITS를 비롯한 한국의 교통인프라 시스템이나 장비 수출 시장이 열리고 있음.
- 아울러 최근 2-3년간 가뭄으로 인한 상수원 부족과 도심 하천의 심각한 오염을 경험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소규모 STP(하수처리장)를 대단위로 통합하는 대형 수처리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임.

[말레이시아 2015년 예산안 속의 주요 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명	예산규모
1	뽕어랑(Pengerang) 종합석유화학단지-RAPID	230억 달러
2	보르네오 횡단고속도로 (Pan-Borneo Highway)	90억 달러
3	2차 MRT (56km, Selayang-Putrajaya노선)	77억 달러
4	3차 LRT (Bandar Utama-Shah Alam노선)	30억 달러
5	공공주택 건설 프로그램 - 13억 링깃: 1 Malaysia 국민주택 - 6.44억 링깃 : 국민주택	7억 달러

자료원 : The Star

-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상기 프로젝트들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현지 기업과 합작을 하거나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차재에 전략적 M&A를 통해 단기간에 현지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말레이시아는 부동산 개발 등을 통해 자금을 축적한 화교자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활발하게 해외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Berjaya그룹 제주도에 리조트 투자 (총 25억 달러 규모)

- 따라서 부동산 개발운영권을 중심으로 한 화교자본 대상 유치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 할랄관광’ 을 매개로 한 관광투자도 적극적으로 모색 필요

4) 전력플랜트 및 공공인프라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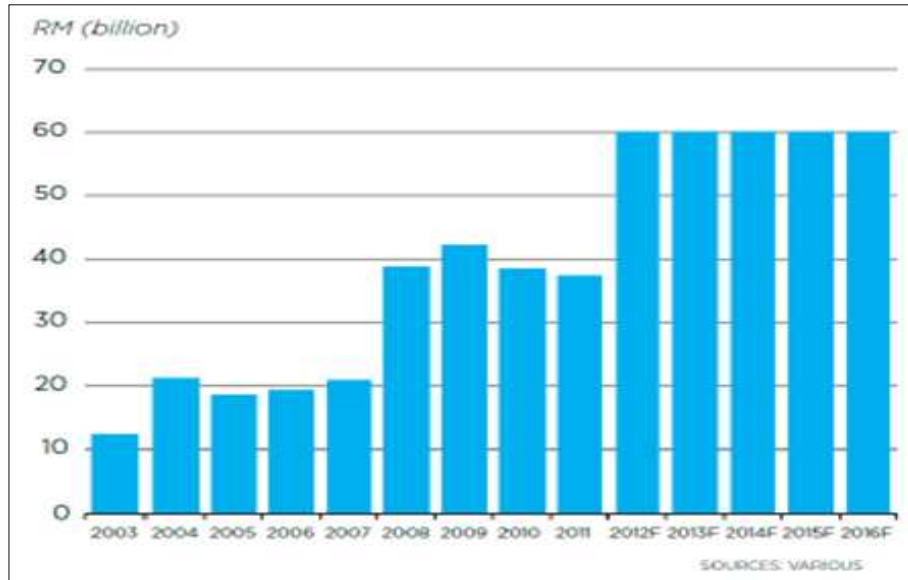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향후 대체에너지원을 활용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바, 그동안의 수주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주 노력을 경주해야 함.
- 특히 신재생에너지청(SED)을 통해 집행하는 FIT(발전차액보조금) 예산이 크게 확충되었는 바, 향후 추진될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와 스마트미터기 프로젝트 그리고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시장에 사전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기임.
-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과 정비가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하수처리 시설(STP) 광역통합 프로젝트나 낡은 상수관 누수현상에 대처하는 ‘ 누수탐지 및 보수 프로젝트’ 그리고 상수처리 플랜트와 같은 수처리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시장 진출이 필요함.
- 그리고 광역수도권개발(Greater Kuala Lumpur/Klang Valley)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2차 MRT 및 3차 LRT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조만간에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철도도 발주가 예상되므로 선진 ITS기술을 확보한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입찰참여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현지 유력기업과의 컨소시엄 형성을 통해 직접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기 수주한 현지기업으로부터 EPC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까지 대비하는 철저한 수주 전략 수립과 이행이 필요함.
- 또한 현지기업들이 수행가능한 분야(토목 등)에서는 현지기업들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므로, 한국기업들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분야라든지, 특정 기술을 앞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전략 추진 필요

5) 오프쇼어 및 석유화학플랜트 분야

- 2008년 이후 석유/가스 생산량이 7% 이상 감소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성숙유정(Mature Field), 한계유정(Marginal Field), 심해(Deep Sea)유정 개발을 통해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이를 위해 국영석유회사인 PETRONAS는 2012년부터 5년간 해마다 200억 달러의 자본 투자지출(CAPEX)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비록 국제유가 하락으로 금년에는 15% 정도 지출감소가 예상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계속 투자한다는 계획임.

[PETRONAS 자본지출 계획]



- 일단 말레이시아에서 오프쇼어나 석유화학플랜트 분야의 일을 하려면 말레이시아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며, 가급적 수주경험이 있는 말레이계 기업이어야 유력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파트너를 통해서 업스트림의 경우에는 석유가스업계의 감독권한을 가진 PETRONAS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고, 다운스트림의 경우에는 라이선스보다 다소 취득이 용이한 벤더등록(Registration)을 해야 프로젝트 참여자격이 주어짐.
- PETRONAS가 글로벌기업 수준이다 보니 납품기업들에게 글로벌기업에 납품경력이나 실적을 레퍼런스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그리고 파이프 및 튜브 관련 바이어들은 API 인증 여부를 대부분 확인하고 있으며, 장비나 부품에 대해서도 납기(Lead Time)이 얼마나 되는 지를 꼭 따지므로 면담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는 지난 2013년에 ‘한-말레이시아 오프쇼어협의회(M-KOC)’를 출범시켜 양국 해양플랜트 기업 100개사를 회원사로 유치해 기업간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기회를 증진시키고 있음.

- 2015년에는 ‘ 해양플랜트 지원센터’ 를 구축해 현지 전문인력을 전담요원으로 배치하고 말레이시아 해양플랜트 및 석유화학 플랜트 진출을 도모하는 한국기업들에게 시장 정보와 비즈니스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6) 할랄분야

- 할랄산업은 말레이시아 경제에 있어 중요한 성장엔진 중의 하나로, 2011년 150억 링깃(50억 달러) 규모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2020년에는 전체 GDP의 5.8%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할랄'의 개념을 확장해 '무슬림에 허용되며(Permissible), 건강에 좋고(Wholesome), 안전하며(Safe), 양질(Quality)'이라는 의미를 지닌 '토이반 할랄(Halalan Thoyyiban)'이라는 개념을 창출함으로써 비이슬람 소비자들의 할랄제품 소비를 장려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처음에는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을 ‘ 글로벌 할랄인증'으로 육성 한다는 목표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 할랄산업 개발 마스터플랜’ 까지 수립해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할랄제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 글로벌 할랄허브’ 로 구축 함으로써 전체 국가 GDP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준으로까지 확장한 상태임.
- 지난 2013년 6월부터는 한국이슬람중앙회(KMF)의 ‘ 한국 할랄인증’ 이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의 인정을 받아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한국 할랄인증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따라서 ‘ KMF 한국할랄인증‘ 을 받은 한국 제품들의 현지시장 진출 활로를 개척 하고, 현지 기업들의 한국 전시회 참가 독려를 통해 양국간 할랄산업 교류를 활성화 시켜갈 예정임.
- 특히 식품이나 미용용품 무역사절단 등을 유치했을 경우에 현지 할랄진흥기관인 HDC에서 운영하는 ‘ 글로벌할랄센터’ 방문을 지원하고, 현지 할랄시장 동향과 할랄 인증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계획임.
- 아울러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말레이시아 정부의 할랄인증(JAKIM인증) 기능을 한국으로 유치하거나 한국기업이 저렴하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통로 개척을 모색 중

I.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 국내총생산(GDP)

- 2014년 말레이시아 경제는 4분기 GDP가 예상보다 높은 5.8%를 달성하면서 연평균 GDP가 6.0% 성장하여 전년도 성장을 4.7%를 넘어섬.

[말레이시아 2014년 경제성장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6.2%	6.5%	5.6%	5.8%

- 2014년 하반기 유가하락이 말레이시아 경제성장에 악재로 작용하여 연평균 GDP가 6% 미만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건설 및 광업 등 민간지출에 힘입어 선방

□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

- 주류 및 담배류, 식품류, 요식업계 등의 물가상승이 유가하락 효과를 상쇄하면서 2014년 물가상승률은 3.1%를 기록
- 2014년 실업률은 2.9%를 기록하여 2013년도 실업률 3.2%와 유사한 수준

□ 대외경제

- 2014년 수출은 2,318억 달러, 수입은 1,940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 흑자 378억 달러로 전년도의 325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하반기 이후 달러화 대비 링깃화 환율은 상승세(링깃화 약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국제유가 급락이 석유 및 가스 수출국인 말레이시아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함

□ 정부부채

- 정부재정 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실현하여 2014년 정부재정적자규모는 GDP 대비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유가하락은 말레이시아 재정적자 악화요인으로 작용
- 이 같은 지속적인 적자재정으로 인해 2014년 총 정부부채의 규모는 GDP 대비 54.5%가 될 것으로 예상

□ 외국인투자유치

-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급감하였으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투자는 국경석유기업인 PETRONAS의 해외광구 매입 등의 활동에 따라 매해 변동 폭이 발생함.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투자유치(단위: 백만 달러)]

유형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투자유치	7,172	1,453	9,060	12,198	10,074	12,306
해외투자	14,965	7,784	13,399	15,249	17,115	13,600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 경제성장 전망

- 2015년에도 민간부문 경제활동 및 수출 관련 산업의 호조에 따라 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 하지만 유가하락이 경제성장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주요 경제 지표

	단 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GDP (1인당 GDP)	US\$억 (US\$)	2,475 (8,569)	2,893 (9,956)	3,050 (10,331)	3,132 (10,457)	3,272 (11,062)	3,483 (12,127)
경제성장률	%	7.4	5.2	5.6	4.7	6.0	5.4
1인당 GDP (구매력기준)	US\$	19,998	21,085	22,369	23,384	24,766	26,200
소비자물가상승율	%	2.1	3.0	1.2	3.2	3.1	3.5
실업률	%	3.3	3.1	3.0	3.1	2.9	3.0
환율 (기말기준)	링깃:달러	3.08	3.18	3.06	3.28	3.31	3.19
수출(FOB)	US\$억	1,993	2,286	2,277	2,192	2,318	2,437
수입(FOB)	US\$억	1,570	1,791	1,869	1,867	1,940	2,091
무역수지	US\$억	423	495	408	325	378	346
경상수지	US\$억	270	335	186	117	187	113
정부재정수지 (GDP대비)	%	-5.4	-4.8	-4.5	-3.9	-3.6	-3.5
누적정부부채 (GDP대비)	%	51.1	51.5	53.3	54.7	55.3	55.5
외환보유고	US\$억	1,065	1,087	1,397	1,349	1,330	1,406

* 자료 : EIU, IMF(2014년 이후는 추정)

II. 산업 동향 및 주요 산업정책

□ 주요산업별 정책추진 동향

- 말레이시아는 석유가스, 팜오일, 고무, 목재, 주석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 부국이자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조업 기반확충 노력의 결과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 화학, 화학제품 및 철강분야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도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최근에는 IT, 바이오산업, 이슬람금융, 관광, 교육 등 첨단기술 집약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어 탄탄한 12차 산업의 기반위에 첨단기술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음

□ 경제개발정책

- 말레이시아 정부는 ‘Vision 2020’이라는 장기 발전전략과 5년 단위의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 및 집행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 중임. 특히 5년 단위의 말레이시아 계획(Malaysian Plan)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말레이시아 경제정책 및 발전전략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2010년 6월 발표된 제10차 말레이시아계획과 함께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개혁 방안인 New Economic Model(NEM)을 추진 중임

NEM 기본 원칙
○ High Income : 현재 1인당 GDP 7천 달러에서 10년 내에 1만5천 달러로 도약 ○ Sustainability :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과 자원에 대한 배려로 삶의 질 향상 ○ Inclusiveness : 인종에 무관한 빈곤탈피 정책 추진

- NEM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민간부문 주도의 경제발전, 지방 자치에 따른 결정, 클러스터 및 경제구역 기반 경제활동 강화, 기술 산업 및 기업 우대, 아시아 및 중동지역 중시, 고급 기술인력 유치 등과 같은 실천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 ASEAN Economic Community(AEC) 2015

- 말레이시아는 2015년 ASEAN 의장국으로서 2015년 말까지 ASEAN 역내 통합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AEC 2015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국의 시장개방 속도를 높이고 있음.

III. 경쟁국/글로벌기업 진출전략 및 현황

□ 말레이시아 투자환경

- 말레이시아는 지리적으로 ASEAN 지역의 중심에 있다는 이점 외에도, 이슬람이 국교 이면서 경제계에 화교의 영향력이 크고 영어가 통용된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시장임. 이에 내수시장에 기회가 많음은 물론 여러 국가와의 접근성도 용이하여 투자매력도가 높은 국가임.
- IMD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말레이시아의 2014년 국가경쟁력은 12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인근 동남아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주요 외국기업 진출현황

- 말레이시아에는 전기전자산업, 화학산업을 중심으로 5천 여 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음. 전기전자산업의 대표기업으로는 Intel, AMD, Toshiba, Hitach, Ibiden, Philips, Panasonic, Inferion 등, 석유화학기업으로는 Royal Dutch Shell, Exxon Mobil, Tokuyama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기업으로는 Honda, Toyota, Denso 등이 있음.
- 2014년 3분기 기준 말레이시아 정부가 승인한 제조업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승인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일본이 최대 투자국임.

[최근 2년간 말레이시아 제조업 투자유치동향]

(단위 : 건, 백만 달러)

	2014년 3분기		2013년	
	건수	투자유치액	건수	투자유치액
일본	47	3,226	55	1,095
싱가포르	96	1,755	126	1,379
중국	16	1,434	22	920
독일	9	1,227	17	523
한국	10	472	13	1,670
미국	17	345	19	1,927

* 자료원 : Malaysia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 투자유망 분야

- 말레이시아 정부차원에서 항공우주산업, 생명공학산업, 정보통신기술 등 고도기술 수반 제조업이나 관광산업, 해운 및 운송업, 교육산업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함.
- 단 서비스 산업의 경우 말레이계 현지인 지분 요건을 적용하거나 법률분야 등은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제약이 있음.

나

우리나라 진출현황

I. □ 출입 동향

□ 무역 □ 지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은 75억 8,800만 달러, 수입은 111억 100만 달러를 기록하여 교역수지는 35억 1,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18대 수출국이자 14대 수입국

[최근 5년간 한국의 對 말레이시아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對말련 수출	6,115 (41.5)	6,275 (2.6)	7,723 (24.3)	8,588 (11.2)	7,588 (-11.6)
對말련 수입	9,531 (25.8)	10,468 (9.8)	9,796 (-6.4)	11,096 (13.3)	11,101 (0.05)
교역수지	-3,416	-4,193	-2,073	-2,508	-3,513

* 자료 : KITA

□ 품목별 교역동향

-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집적회로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휘발유, 기타 정밀 화학원료 등이 있음. 우리나라의 對 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장치 산업에 기반을 둔 제조업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주요 수입 품목은 천연가스, 중유, 집적회로반도체, 원유, 컴퓨터 부품임. 우리나라의 對 말레이시아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가스 등 천연 자원과 말레이시아가 발달한 전기전자 부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한국의 對 말레이시아 품목별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수출 품목	2013년	2014년	수입 품목	2013년	2014년
집적회로반도체	546	683	천연가스	2,953	3,192
평판디스플레이	390	590	중유	1,488	1,489
휘발유	231	532	집적회로반도체	895	874
기타정밀화학원료	228	323	원유	616	450
경유	1,673	315	컴퓨터부품	405	369
합성수지	294	293	알루미늄괴및스크랩	246	299
합성고무	276	285	개별소자반도체	308	272
승용차	317	239	식물성유지	262	271
동괴및스크랩	81	222	기타석유화학제품	156	173
냉연강판	174	154	주석괴및스크랩	160	172

* 자료 : KITA

II. 투자진출/투자유치 현황

□ 우리나라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유치 현황

- 우리나라의 對 말레이시아 투자유치 누계(2014년 3분기 신고기준)는 총 805건, 75억 996만 달러임. 이 중 제조업 투자신고는 240건, 21억 7,011만 달러, 서비스업 투자 신고는 539건, 49억 7,056만 달러를 기록하여 서비스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진출 현황

-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투자누계(2014년 3분기 신고기준)는 1,730건에 109억 8,975만 달러이며 투자금액은 46억 6797만 달러임.
- 1968년부터 2014년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對 말레이시아 업종별 투자현황을 살펴 보면 광업이 가장 많아 신고금액기준으로 66억 1,284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제조업이 많아 신고금액 기준으로 27억 494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III. 성공/실패사례

□ 현지화 성공사례 : 삼성 SEREMBAN 전자복합단지

- 1989년 9월 공장 설립 이후 14억 달러가 넘게 투자된 삼성 SEREMBAN 전자 복합 단지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코닝의 해외법인이 입주해 패널, 컴퓨터용 칼라 모니터, 전제레인지 오븐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생산 체계를 갖춘.
- 2004년에 최고경쟁력 기업상과 최우수 기업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등 현지 정착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현지화임. 우수인력의 확보 및 양성으로 현지인의 생산성 제고 및 지속적인 현지 협력업체 개발로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 지역사회에 기여를 통해 외국기업에 대한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

□ 현지진출 실패사례 : 한국 컨소시엄의 현지 발전소 건설추진

- 한국 컨소시엄 E사는 말레이시아 S주 팜오일 산업단지 (POIC)에 총 사업비 1억 달러 규모의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사업을 추진
- 하지만 사업이 시작되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계획했던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J발전이 진출한 S주 등 일부 지자체의 반발로 시행이 유보되어 발전소 건설이 좌절. 현지 진출 시 새로 시행되는 정부정책의 이해관계자 및 정책추진동향 분석 필요

다

2015년 무역관 추진사업(잠정)

□ 2015년 주요 마케팅 사업(안)

연번	사업명	시기	장소	비고
1	충남 동남아 무역사절단	3.4(수)		비엔티엔, 싱가포르
2	그린IT 프로젝트 및 구매 상담회	3.12(목)		자카르타
3	METALTECH(전시회) 한국관 운영	5.20(수)-5.23(토)		기계산업진흥회
4	경기도 광주시 무역사절단	5월		
5	아산시 무역사절단	6월		자카르타
6	해양플랜트 무역사절단	6월		부산조선해양기자 재공업협동조합
7	성남시 무역사절단	7.7(화)		멜버른
8	대구 무역사절단	9월		하노이, 마닐라
9	IGEM(전시회)한국관 운영	9.9(목)-9.12(일)		환경보전협회 (KEPA)

□ 자료관련 문의

구분	담당자	Tel	Email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연승환	60-3-2117-7104	yeon@kotra.or.kr
본사 신흥시장팀	안유석	02-3460-7312	sean-ahn@kotra.or.kr

<끝>